연승에 마음 편해진 박찬호 “다 잘 쳐주니 9번 타자로 부담없어…수비만 잘 하면 돼”

마음 편한 박찬호〈사진〉가 ‘호랑이 군단’의 수비수로 팀 승리를 돕는다.

6연패의 수렁에 빠졌던 KIA는 살아난 타선의 힘으로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리드오프 류지혁을 필두로 박동원·나성범의 ‘한방’에 최형우의 노련함이 더해진 타선. 소크라테스와 황대인도 밑에서 공격을 이어주면서 KIA는 한숨을 돌렸다.

팀의 연승 질주 속에 가장 마음이 편해진 선수는 박찬호다.

허벅지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박찬호는 5월 3일 1군에 복귀했다. 공교롭게도 박찬호의 복귀 시점과 맞물려 KIA가 반전을 이뤘다.

박찬호는 “내가 오니까 연승한다. 나한테 안타 맞으면 상대 투수들이 그렇게 싫어한다. 나도 그래도 1년에 100개 이상 치는데 나한테 맞으면 기분 나빠한다. 여기에 내가 도루까지 하면 상대가 더 흔들리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웃었다.

또 “다 잘 쳐주니까 9번 타자로서 부담이 없다. 번트 사인 나오면 번트 대고, 희생타 한 번씩 치고 있다.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니까 부담 없이 하면서 안타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다”며 “(류)지혁이 형이 1번 타자해주고 잘해주니까 지금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부담이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공격력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서 편하다. 지금은 수비 밖에 할 게 없다. 너무 편안하다. 수비만 잘 하면 된다. 나는 우리 팀 수비수다”고 이야기 했다.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욕심은 있다. 부상 전에는 김종국 감독이 인정할 정도로 좋은 타격감을 보였던 만큼 지금 페이스가 아쉽기는 하다.

박찬는 “지금 방망이가 별로 좋지는 않다. 뭔가 더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다”며 “가기 전에 진짜 감이 좋았다. 부상 타이밍이 아쉬웠다. 근육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으니까 좀 더 참고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아쉬워했다.

좋았던 감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은 있다.

박찬호는 “믿고 있다. 자신감이 있다. 운동이 자신감이다. 비시즌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잘 칠 것 같다”고 말했다.

출발이 좋지 않았던 수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박찬호는 “올 시즌 급한 것은 없었는데 글러브를 바꾸면서 실수가 있었다. 단단한 가죽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바꾼 글러브가 부드러워서 포켓에서 공이 많이 놀았다. 그래서 다시 작년 글러브를 쓰고 있다”며 “그래도 내가 더 잘해야 했다. 어이없는 실책이 많았다. 실책이 숙명이기는 하지만 이제 안 해야 한다. 몰아서 7개 했으니까 이제 안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찬호에게 기대하는 또 다른 부분 ‘뛰는 야구’에도 신경 쓸 생각이다.

박찬호는 “언제든 뛸 준비는 되어있다. 도루도 많이 하고 뛸 것이다”며 “감독님께서도 수비만 잘 하라고, 출루해서 도루하라고 하신다. 방망이 잘 치라는 말씀은 안 하신다(웃음). 편하게 경기하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KIA 승리의 빛나는 조연을 자처했다. /김여울 기자 wool@

“편한 마음으로 기회 잡겠다”

KIA 이적생 김정빈·임석진 각오 다져

김정빈 “낯설지만 익숙한 팀”
1군 등록 임석진 “감격의 날”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한 임석진(왼쪽)과 김정빈. 〈KIA 타이거즈 제공〉

새 유니폼을 입은 이적생들이 “기회를 잡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9일 SSG 랜더스와 1대 2 트레이드를 진행해 포수 김민식을 내주고, 좌완 김정빈과 내야수 임석진을 받았다.

트레이드를 통해 빈 틈인 좌완 불펜을 채우고 한방 있는 내야 자원을 선택한 KIA는 10일 KT와의 홈경기에 맞춰 임석진을 콜업했다. 지난 6일 퓨처스리그에서 등판했던 김정빈은 가벼운 담 증세로 1군 합류가 미뤄졌지만 이날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새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정빈에게 KIA는 낯설지만 익숙한 팀이기도 하다. 광주 출신으로 화순고를 졸업한 그는 어린 시절 무등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면서 성장했다.

김정빈은 “소식 듣고 설레는 마음이기도 했고 고향팀이라 그런지 정도 갔다. 어릴 때 무등경기장 가면 KIA에 입단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며 “몸 상태는 괜찮다. 급하지 않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KIA 좌완 투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간 투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1이닝 정도는 막을 수 있겠다는 자신은 있다”며 “올 시즌에 구속은 146㎞까지 나왔다. 구속은 떨어졌지만 공은 더 좋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선발로 기회는 얻었음에도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좋은 실패’가 됐다.

김정빈은 “작년에 선발하면서 안 좋았다.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야구 싫어하는 표정으로도 보였을 것이다. 투구폼 바꾸고 자꾸 변화를 주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던지는 줄도 모르고 점점 힘든 시즌이 됐다”며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 시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KIA에 아는 사람도 많고 여기 올 때 김광현, 추신수 선배에 이어 양현종 형을 비롯해 메이저리그 3명하고 하게 된다는 것에 행복했다”고 말했다.

임석진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임석진은 신인 시절이었던 2016년 이후 처음 1군에 이름을 올렸다.

임석진은 “긴장도 했는데 분위기가 좋고 다들 잘 해주셔서 적응 잘 한 것 같다”며 “그동안 1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처져 있었는데 트레이드 이후 등록도 되고 좋은 일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하루다”고 웃었다.

기회를 얻은 그는 자신에게 기대하는 장타력으로 어필할 생각이다.

임석진은 “나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장타라고 생각한다. 경기 후반에 나가서 타점을 올리는 것, 실투를 놓치지 않고 멀리 보내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다”며 결정적인 순간 힘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임석진은 올 시즌 시범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며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었다.

임석진은 “시범경기에서는 잘 되니까 힘이 들어갔다. 마음 비우고 했을 때는 잘 됐는데 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늦었다. 맞추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것을 찾고 있다”며 “나성범 선배와 말을 해본 적은 없는데 연예인 같은 느낌이다(웃음). 이범호 코치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홈런도 많이 치고 수비도 잘 하고 공도 잘 던지고 싶다”고 포부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살라흐 앞에 손흥민

스카이스포츠 EPL 시즌 누적 ‘파워랭킹’ 1위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정규리그 20골을 돌파한 손흥민(30·토트넘·사진)이 영국 스카이스포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시즌 누적 파워랭킹 1위에 올랐다.

스카이스포츠는 9일(현지시간) 2021-2022시즌 누적 파워랭킹을 발표하며 손흥민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7만1587점을 기록, 7만1295점을 쌓은 살라흐를 밀어내고 이번 시즌 EPL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가 됐다.

스카이스포츠의 파워랭킹은 ‘선수 개인 순위표’다. EPL 최근 5경기를 바탕으로 득점, 도움, 차단, 태클 등 35개 부문의 활약을 평가하고 최근에 치른 경기에는 가중치를 두는 방식인데, 이번에 발표된 건 시즌 누적 수치다.

스카이스포츠는 “살라흐가 거의 시즌 내내 시즌 순위에서 1위를 지켜왔으나 3경기를 남기고 손흥민이 그를 제치고 맨 위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이번 시즌 페널티킥 없이 20골을 기록 중으로, 기대득점(xG·13.11)의 거의 두 배를 넣었다. 살라흐는 자신의 기대득점(22.43)과 비슷한 22골을 넣었고, 그중 5골이 페널티킥”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살라흐의 뒤엔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리버풀·6만5115점), 주앙 칸셀루(맨체스터 시티·6만5002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최신 파워랭킹에서도 단연 1위였다. 9923점을 따내 맨체스터 시티의 가브리엘 제주스(9737점), 로드리(9253점) 등에 앞섰다.

손흥민은 1일 레스터 시티와의 EPL 35라운드에서 2골 1도움으로 펄펄 날았고, 7일 36라운드에서는 우승 후보 리버풀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려 팀이 1-1로 비기는 데 앞장서는 등 최근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특히 리버풀전 득점포로 정규리그 20골을 기록, 프로에서 처음으로 한 시즌 리그 20골 고지를 밟았다. 아울러 현재 득점 선두인 살라흐(22골)를 2골 차로 추격해 아시아 선수 최초의 유럽 5대 리그 득점왕도 넘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면, 다시 본다

2018년 마스터즈 골프대회를 앞두고 그린에 나란히 선 우즈(왼쪽)와 미컬슨. /연합뉴스

우즈·미컬슨 19일 개막 PGA 챔피언십 격돌

자동차 사고를 이겨내고 재기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왼쪽)가 마스터스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에도 출전한다.

또 넉 달 동안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무대에서 사라졌던 필 미컬슨(미국·오른쪽)도 PGA챔피언십 출전을 확정했다.

우즈와 미컬슨은 10일(한국시간) PGA챔피언십을 주최·주관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확정해 발표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PGA챔피언십은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작년 2월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잘라낼 뻔한 중상을 입은 우즈는 지난달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 기적 같은 부활을 알린 뒤 PGA챔피언십 출전을 저울질했다.

우즈는 지난달 29일 서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연습 라운드에 나서기도 했다.

PGA챔피언십에서 4번 우승한 우즈가 네 번째 PGA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곳이 서던힐스 컨트리클럽이다.

이곳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이라 아직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우즈가 비교적 무리 없이 경기할 수 있어 마스터스 출전 이전부터 복귀 무대로 점쳐졌다.

디오픈에 출전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우즈는 US오픈 출전 신청도 일단 내놓아 이번 PGA챔피언십 결과에 따라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 PGA투어에 대항하는 새로운 골프 투어 창설에 앞장서다 PGA투어, 동료 선수, 스폰서 등의 눈총을 사자 ‘자숙’해온 미컬슨은 이번 PGA챔피언십 출전 여부가 주목받았다.

그는 작년 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다.

미컬슨은 PGA투어와 대립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원 신규 골프 투어인 리브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개막전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